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는 '바알레유다'라고도 부르는 유다의 바알라 곧 기랴여아림에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겨 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삼하 4:11). 그 후에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서 벧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두었습니다(삼하 7:1-2).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3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기를 독려하며 이와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어 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또는 어떠한 대소사를 앞에 두고라도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곳에 두시며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 12:4-5). 그래서 다윗은 기랴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도 하고 또 그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랴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떠날 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히오(아효)가 수레를 몰고 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나곤의 타작마당; 삼하 6:6)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는 웃사가 몰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가 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웃사가 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궤가 넘어져서 파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의문입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있었고 소들이 뛰어 그 궤를 붙든 것이 그가 죽을 만한 일인가요? 하는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인간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인된 본성이 어떠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죽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인가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답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궤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만지게 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인에 불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우주선이 태양을 향해 비행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선이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태양의 열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그 우주선은 자동적으로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들이 아무런 장치 없이 다가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인간의 죄의 속성이 만나면 인간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마련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각자 맡은 본분대로 성소와 그 기구들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사장들이라도 각자 자신이 맡은 성소의 기구들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4장15절에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아무도 함부로 성소의 기구를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웃사의 교만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있던 하나님의 궤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웃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소중한 상자, 하지만 피동적인 상자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부러져 있던 다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궤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몰던 소가 뛰니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는 죽었습니다. 그곳을 '웃사를 치셨다'는 의미로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대상15:2)"라고 말하면서 지난 번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각종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궤를 메어 올렸고 다윗도 춤추며 여호와 앞에 뛰어 놀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궤를 위하여 준비한 장막에 도착하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한가지 마음 속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만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참여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